펜트하우스·허쉬·철인왕후 등 촬영장 확진자 발생 제작 중단

**보조출연자가 타드라마 출연 확진자와 동선 겹쳐
이틀만에 드라마 9편 제작 중단 사상 초유 사태**

방송가가 또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틀 만에 9편의 드라마가 제작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4일 SBS '펜트하우스'와 JTBC '허쉬', tvN '철인왕후' 촬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제작진이 촬영을 취소했다. 각 제작진은 "보조출연자가 앞서 양성 확진을 받은 타 드라마 출연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됐다"며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촬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드라마 출연진과 스태프는 자가격리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여러 드라마 촬영장을 오가는 보조출연자들의 동선이 서로 겹치면서 MBC '나를 사랑한 스파이' 현장에서는 밀접접촉자가 발생했다. 제작진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촬영을 취소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보조출연자를 비롯해 현장에 함께 있던 스태프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했다.

앞서 23일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을 비롯해 JTBC '시지프스'(가제)와 '설강화', MBN '보쌈-운명을 훔치다', SBS '조선구마사' 등 촬영현장에서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나왔다. '보쌈'의 주연 정일우와 권유리, '시지프스'의 박신혜 등이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슈주, 비욘세 에이전시와 손잡았다

그룹 슈퍼주니어가 미국 톱 에이전시와 손잡고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소속사 레이블SJ는 24일 "미국 ICM 파트너스와 아시아 활동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CM 파트너스에는 가수 비욘세, 니키 미나즈, 칼리드, 배우 사무엘 잭슨 등 세계적인 톱스타들이 소속돼 있다. 최근 청하, 모모랜드 등도 계약했다. 존 플리터 ICM 파트너스 부사장은 "세계 투어, 마케팅 등을 통해 슈퍼주니어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중기, '2020 MAMA' 진행자로 낙점


송중기

배우 송중기가 12월6일 CJ ENM이 개최하는 '2020 MAMA' 진행자(호스트)로 낙점됐다. 송중기는 2012년, 2017년, 2018년에도 MAMA를 진행했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MAMA는 글로벌 음악 시상식으로 그동안 일본, 홍콩 등 다양한 도시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감염증 확산 여파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 세븐틴, 트와이스 등이 출연을 확정했다.

전현무·장도연·안보현 MBC연예대상 MC

방송인 전현무, 개그우먼 장도연, 연기자 안보현이 '2020 MBC 방송연예대상' 진행자로 나선다. MBC는 24일 "전현무, 장도연, 안보현이 12월29일 열리는 시상식의 진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전현무는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진행자 마이크를 잡는다. 장도연은 작년 베스트 엔터테이너상을 수상해 올해 '나 혼자 산다' 등에서 활약해 진행까지 맡게 됐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필수이던 결혼이 이젠 옵션?…드라마·예능도 세태 반영

"결혼·출산은 찐 현실" 시청자들 절대 공감

**'산후조리원' '며느라기' '제발 …'
현실적 문제 다룬 드라마들 인기
채널A '애로부부' 19금 고민 화제**







결혼은 현실이다. 최근 결혼과 육아,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그린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각 소재를 내세운 드라마 '산후조리원', '며느라기'와 예능프로그램 '금쪽같은 내 새끼'(위부터)의 한 장면. 사진제공 | tvN·카카오TV·채널A

최근 통계청이 결혼과 육아·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를 내놓았다. 올해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59.7%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응답자도 30.7%이었다. 과거 '인생의 필수 과정'으로 여겨졌던 결혼과 육아·출산이 요즘엔 '옵션'이 된 것일까.

방송가가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발빠르게 반영한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다. 허구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냉정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면서 시청자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산후조리원'부터 '며느라기'까지…결혼은 현실!

24일 종영한 tvN '산후조리원'은 출산 소재를 가장 실감 나게 그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드라마는 나이 마흔 넘어 뒤늦게 첫 아이를 낳은 엄지원을 통해 '초보엄마'들이 겪는 출산 이후 혼란과 복직 스트레스 등을 담았다. 기혼 출산 경험을 지닌 시청자뿐 아니라 미혼자들 사이에서도 '출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21일부터 선보이고 있는 카카오TV '며느라기'는 막 결혼한 새댁 박하선의 시선으로 아내이자 며느리의 고충을 그려낸다. 신혼부부가 '시월드'를 경험하며 어깨너머로만 들었던 결혼의 '민낯'을 드러낸다. 시청자들의 짙은 공감에 힘입어 공개 사흘 만인 24일 오후 조회수 93만뷰를 돌파했다.

결혼 준비 도중 겪는 갈등을 담아낸 MBC에브리원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도 있다. 드라마 초반, 주인공 송하윤이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예비신랑에게 실망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결국 예비신랑이 유흥업소에 드나든 전력을 발견하고 파혼하는데, 이를 인공지능(AI) 냉장고 '조상신'이 알려준다는 설정이다. 최근 유행하는 '조상신이 도왔다'는 말에서 따왔다.

●'애로부부' '금쪽~'…부부관계에 대해 묻다

부부를 넘어 가족관계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예능프로그램들도 인기다.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는 부부 사이의 은밀한 고민을 가감 없이 담아내며 화제몰이 중이다. '19금' 소재부터 골 깊은 부부 갈등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매회 에피소드가 시청자들의 갑론을박을 이끌어내며 시청률이 2.1%(닐슨코리아)까지 치솟았다.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는 육아프로그램이지만, 아이 문제의 원인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불균형에서 찾으면서 가족의 의미를 짚어낸다. 스타들의 육아 과정만을 들여다보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현실적인 육아의 어려움을 드러내 신선하면서도 공감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미나리' 아카데미 레이스 스타트

**12월초 美 개봉후 상영 규모 확대
출품 요건 충족 위한 행보 본격화**


영화 '미나리'가 내년 아카데미상 겨냥을 위해 12월 11일 미국에서 먼저 개봉한다. 사진제공 | 플랜B

윤여정, 한예리, 한국계 미국배우 스티븐 연 등이 주연한 영화 '미나리'가 미국 개봉 일정을 확정하고 내년도 아카데미상 후보 지명을 위한 레이스에 오른다. 영화는 미국 선댄스영화제와 덴버영화제 등에서 수상하고 10월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호평 받아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 지명의 유력작으로 꼽혀왔다.

24일 공신력을 인정받는 세계 최대 영화 전문 사이트 IMDB닷컴에 따르면 '미나리'는 12월1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에서 개봉한다. 일단 일부 극장에서 개봉한 뒤 관객 반응 등 시장상황에 따라 상영관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미나리'는 아카데미상 후보작 출품 조건에 부합하게 됐다. 시상식 등 아카데미상을 주관해온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LA 카운티의 극장에서 7일 이상 상영한 영화에 후보 출품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각 극장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AMPAS는 매년 2월 열어온 시상식을 내년에는 4월25일 진행키로 했다. 후보작(자) 발표도 3월15일 시행하는 등 일정을 연기해 출품작 상영 조건도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아직 변동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미나리'는 관련 조건을 맞추며 아카데미상을 향한 레이스를 본격화하게 됐다. 아카데미상을 노리는 작품들은 대체로 전년도 가을과 겨울시즌 개봉하고 다양한 홍보 및 프로모션 활동을 벌이는 레이스를 펼쳐왔다.

'미나리'의 아카데미상 관련 가능성은 전미비평가위원회와 뉴욕비평가협회 등이 12월부터 잇따라 주관하는 미국의 각종 영화상 수상 여부로도 점칠 수 있다. 올해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도 작년 말부터 현지 다양한 영화상을 거머쥐면서 아카데미상으로 향했다. 버라이어티, 인디와이어 등 유력 영화전문 매체들도 작품과 함께 윤여정을 비롯한 배우들이 현지 영화상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인가족이 신산한 삶을 이어가는 이야기이다.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정이삭(리 아이작 정) 감독의 미국영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영화 '콜'에 서태지 깜짝 등장

**1990년대와 현재의 설정 위해
서태지 공연영상 등 도움 요청
서태지측도 흔쾌히 자료 제공**

'서태지가 돌아왔다?'

톱스타 서태지가 영화를 통해 무대에 나선다. 이야기와 사건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인물로 등장해 팬들의 반가움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

서태지는 29일 넷플릭스가 전 세계 동시 공개하는 영화 '콜'(감독 이충현)에서 1990년대 후반 전성기 시절 모습으로 등장한다. 다양한 사진과 공연 영상으로 팬들을 다시 만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모습을 담은 자료가 소품 등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콜'은 1999년과 2020년의 현재를 각각 살아가는 28살의 두 여자가 전화로 교감하면서 벌어지는 모종의 사건을 그린 판타지 영화. 전종서와 박신혜가 각기 과거와 현재에서 운명을 둘러싼 집착과 폭력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서태지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모티브이자 설정이 된다. 1999년 서태지의 팬인 전종서와 현재의 박신혜가 그의 노래를 통해 교감하며 유대감을 쌓아가기 때문이다. 또 서태지는 2000년 내놓은 솔로 2집 수록곡 '울트라맨이야'를 영화의 주요 삽입곡으로도 선보인다. 이야기를 고조시키는 대목에서 삽입곡으로 활용돼 영화 보는 맛을 더해준다.



영화 '콜'의 포스터

'콜'의 제작사 용필름 측은 이를 위해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에 자료 제공 등을 요청했다. 서태지는 줄거리 등 영화 관련 정보를 접한 뒤 흔쾌히 응했다. 용필름의 박지영 실장은 "1990년대 말의 시대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문화적 코드로서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서태지만한 상징적 인물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덕분에 서태지는 '콜' 제작진이 영화 제작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도움주신 분들' 크레딧의 맨 앞에 이름을 올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